

##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 연구\*

### A Study on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남 영 옥\*\*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 of Daegu  
Professor : Nam, Young-Ok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amine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se influential factors. For these aims, it targeted 186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at acces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or multi-cultural institutions in the Daegu and Gyeongbuk area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indicated to be self-esteem, parental marital relations, bullying, and the support of adults other than their parents. In other words, these children's higher level of social adjustment was correlated with higher self-esteem, better parental marital relations, fewer bullying experiences from their peer group, and more support from adults other than their parents'. Secondly, support from adults other than parents was indicat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factor having the second highest level of influence was indicated to be self-esteem, followed by parental marital relations, and then bullying.

---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가족 아동(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다른 성인의 지지(support from adults other ), 부부관계(parental marital relations)

####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은 총 36,706명으로 2010년에 비해 22.2%가 증가하였다. 이들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27,285명으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전체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아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며, 성장과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아동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 이외에도 부모의 문화와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부모의 이중문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부모로 인한 적절한 언어습득의 어려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에서 일반가족의 자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

\* 이 연구는 2010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비해외과건 연구지원  
금에 의한 것임.

\*\* 주저자 · 교신저자 : 남영옥 (E-mail : yonam@cu.ac.kr)

겪고 있다(Hahn, 2009; Park & Lee, 2010). 실제로 국가인 권위원회(2010)가 다문화가족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도 서투른 한국어 발음과 남들과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37%, 폭행을 경험한 학생이 15.1%, 친구 한명 없이 지내는 학생이 59%로 보고되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인터넷 중독률(37.6%)이 일반가족 아동(12.3%)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과 따돌림으로 인해 친구관계 형성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게임 속 가상현실로 도피함으로써 사회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반복된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회적 소외와 좌절감을 느끼면서 다문화가족 아동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과잉행동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타인과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워 대인관계에서 불신을 보이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등 사회적 관계능력의 형성과 발달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mero & Roberts, 2003; Crosnoe, 2005; Park, 2009a; Choi, 2010; Kim, 2011). 이러한 문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비행, 반사회적 행동, 자살기도 등 이후 발달단계상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Crosnoe, 2005; Park, Cho, & Lee, 2008; Park, 2009b).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관계능력에 초점을 둔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적응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의존적 과정으로 설명되며, 심리, 행동적 측면에서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사회적 적응과는 달리, 사회적 적응은 환경과 관련된 행동,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Kim, 2011). 이러한 사회적 적응은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화롭고 균형잡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Yoon & Park, 2003; Kim, 2011). 아동은 유아기와는 달리 학교라는 장을 경험하면서 교사, 친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며, 사회적 상황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배우고, 사회적 적응력을 가지게 된다(Asher, 1983).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이후 발달단계상의 사회적 관계형성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적응(Hahn, 2009; Choi, 2010; Shin, 2010; Un, 2010; Jeong, 2011; Kim, 2012)이나 심리사회적 적응(Lee, 2007; Shin, 2008; Kim, 2011), 적응유연성(Park, 2009b)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Kim, 2007; Park, 2009a; Lee, 2012; Song, 2012)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적응 관련 연구들도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심리적인 상태인

자아존중감에만 주목하거나(Lee 2012; Song, 2012),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Kim, 2007)와 같은 단일차원의 요인에 초점을 두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연구들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체계요인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개인은 가족과 집단,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 있는 존재이므로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개인, 가족, 사회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Kwo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생활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이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많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개인, 가족, 사회요인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개인요인으로 낙관성은 개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써(Perkins & Jones, 2004),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Scheier & Carver, 1992). 이처럼 자신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성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주요 예측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usaie-Mumford, 2001). 실제로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에 관한 연구(Kim, 2008)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더 빨리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관성은 아동의 정신건강(Yang, Lee, & Lee, 2006)과 학교생활만족도(Kwon & Lee, 200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으로 자신이 가치

롭다고 평가한 부분을 말하며 목표를 성취하거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Jeong,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또래집단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에 의한 심리적 좌절감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낮아지고, 이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2009). 그러나 또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은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사회적 성숙도도 높으며,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ee, 2007).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을 알아본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은 상관관계가 있으며(Lee, 2012; Song, 2012),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자기신뢰를 포함한 자기정체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Park, 2009a).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주요인으로 예측된다.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한 위험환경이며(Grych, 2005; Turner & Kopiec, 2006), 자녀들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Emery & O'Leary, 1984). 특히 다문화가족에서의 부부관계는 이질적인 문화와 관습 및 생활태도 등을 절충하고 조화시켜야 하므로 많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Hyun, 2008).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와 자녀의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과의 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아동의 정신건강문제가 증가되고(Yong, 2009), 부부관계의 갈등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Shin, 2010)를 볼 때,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의 격려와 원조, 가족 내의 결속력, 양육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Olsson et al., 2003). 가족 간의 대화와 가족활동에의 참여는 위험환경의 충격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보호적인 힘이 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Kwak, 2008; Park, 2009b)에서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워 가족 간의 상호교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반가족의 어머니보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지녀 자녀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낮추고(Heo, 2011),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과 같은 사회적 유능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10). 이에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성인의 지지는 교사, 성직자, 상담가들과 같은 지역 사회 내의 다른 지지적인 성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지역 내의 성인들과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도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rosnoe, 2005; Park, 2009b).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0). 반면에 다문화가족 아동이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사회로부터 경험한 폭력 및 차별경험은 이들의 인간관계와 생활 만족도(Jeong, 2011), 심리사회적 적응(Shin, 2008)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변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또래관계 중 하나인 집단괴롭힘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Olweus, 1978). 다문화가족 아동은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일반아동과 다른 외모로 인해 차별과 무시, 거부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유아적인 행동이나 특별한 과잉행동을 보이고, 자신이 다른 또래들에게 조소나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Choi, 2010). 그리고 차별경험 및 또래관계 문제는 우울, 위축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며, 학교적응과 행동적응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2011).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지한 또래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사교성, 대인적응성, 주도성 등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지며(Lee, 2010), 차별경험과 또래관계에서의 문제는 대인관계(Jeong, 2011)와 심리사회적 적응(Lee, 2007; Shin, 2008; Kim, 201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들로부터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차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게 되는 개념(Finch & Vega, 2003)으로,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 행동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Un, 2010). 기존의 연구들(Smart & Smart, 1995; Berry, 2002; Kwak, 2008; Park, 2009b)에서 아동의 원활한 문화적응은 이중문화 습득을 통한 긍정적인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주지만, 원활하지 못한 문화적응으로 인해 이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정체감 혼미 등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Lee, 2007; Choi, 2009)을 초래하고, 내재화·외현화 문제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적응(Hong, 2004)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문화수용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Cho, & Lee, 2008)과 학교적응(Un, 201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개인요인으로는 낙관성과 자아존중감, 가족요인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사회요인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 집단괴롭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인, 가족, 사회요인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요인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표본은 확률표집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확률 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에 재학 중인 200명의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구·경북지역의 협조 가능한 초등학교 12개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방법을 설명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통계적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 186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5.2%(84명), 여학생 54.8%(102명)로 전체 186명이었다.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어머니 출신국가는 중국이 26.3%(4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23.7%(44명), 필리핀 21.0%(39명), 베트남 20.4%(38명), 태국 1.1%(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3.0%(80명)로 가장 높았고, 대졸 35.5%(66명), 중졸 11.3%(21명) 등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사회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가 개발한 사회기술평가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중에서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Lee(200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SRS는 여러 연구자들(Lloyd, 2000; Loveland, 2001)이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써 협동성(cooperation) 9문항, 주장성(assertion) 9문항, 공감(empathy) 10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8로 나타났다.

##### 2) 개인요인

###### (1) 낙관성

낙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rkins와 Jones(2004)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와 Scheir 등(1994)이 개발한 생활지향성 검사(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Lee(200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OT-R은 자신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감을 측정하고 있다. 문항의 내용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50으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를 Jeon(1974)이 번안하고, Lee(199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66으로 나타났다.

##### 3) 가족요인

###### (1) 부부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부관계 측정을 위해 Poter와 O'leary(1980)가 개발한 부부불화 척도를 Kim과 Kim(1996)이 번안하여 사용한 문항 중 2개 하위요인 5개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두 분은 서로 미워

하시는 것 같다', '두 분은 사이가 좋으시다' 등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69로 나타났다.

#### (2)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Moraland와 Schewabal(1983)이 제작한 부모-자녀관계 도구(Parent-Child Relation Scale)를 Ju(1992)가 재구성하고 Choi(200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 등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71로 나타났다.

#### 4) 사회요인

##### (1) 다른 성인의 지지

지역사회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Perkins와 Jones(2004), Olson(2003)의 다른 성인의 지지도구, 그리고 Hernandez(1993)가 역할모델과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Lee(2006)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님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성인은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준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88로 나타났다.

##### (2) 집단괴롭힘

집단괴롭힘 척도는 Choi(1999)가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에게 알맞은 용어로 쉽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해-피해집단의 특성 3가지를 유형별(소외형, 언어형, 신체형)로 각각 5문항씩 분포시켜 '피해항목'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친구에게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고 말을 걸 수도 없었다', '점심시간이나 놀이시간에 소외되어 혼자인 적이 있다' 등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경험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99로 나타났다.

#####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아동의 사회적, 태도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AF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ovey와 King(1996)이 라틴계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Nho(2000)의 재미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에서 수정되어 활용된 바 있다. 문항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해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등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57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낙관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r=.636, p<.01$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낙관성이 높을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게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자아존중감( $r=.447, p<.01$ )과 다른 성인의 지지( $r=.414,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가 좋을 경우 자아존중감과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자녀관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404, p<.01$ )를, 집단괴롭힘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404, p<.01$ )를 보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집단괴롭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2>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요인으로 낙관성과 자아존중감, 가족요인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사회요인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와 집단괴롭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1. Correlation among Dependent Variables

	1	2	3	4	5	6	7
1. Optimism	1						
2. Self-Esteem	.636**	1					
3. Marital Relations	.224**	.242**	1				
4. Parent-Child Relationship	.386**	.447**	.363**	1			
5. Other Adult's Support	.263**	.298**	.274**	.414**	1		
6. Bullying	-.314**	-.347**	-.272**	-.399**	-.153*	1	
7. Acculturative Stress	-.155*	-.239**	-.284**	-.404**	.404**	-.223**	1

\* $p < .05$ , \*\* $p < .01$ 

Table 2. Multiple Regression of Factors Affecting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Adjustment				
		B	SE	$\beta$	t	p
Personal Factors	Optimism	.082	.065	.100	1.267	.207
	Self-Esteem	.210	.071	.239	2.957**	.004
Familial Factors	Marital Relations	.143	.039	.237	3.638***	.000
	Parent-Child Relations	-.037	.059	-.048	-.630	.529
Social Factors	Other Adult's Support	.146	.040	.244	3.676***	.000
	Bullying	-.157	.057	-.191	-2.751**	.007
	Acculturative Stress	.040	.053	.052	.756	.450
F						15.824***
$R^2(\text{adj. } R^2)$						.386(362)

\*\* $p < .01$ , \*\*\* $p < .001$ 

개인요인에서는 자아존중감( $\beta=.239$ ,  $p<.01$ )이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함에 있어 스스로의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의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낙관성( $\beta=.100$ )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서는 부부관계( $\beta=.237$ ,  $p<.001$ )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에서 갈등과 긴장 정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 $\beta=-.048$ )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성인의 지지( $\beta=.244$ ,  $p<.001$ )와

집단괴롭힘( $\beta=-.191$ ,  $p<.01$ )이 유의미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이 부모나 교사 이외의 성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또래들로부터 받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기의 사회적 적응은 또래, 교사, 이웃과 같이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와의 원만한 교우관계나 다른 성인을 통해 받은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beta=.052$ )는 사회적 적응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해 38.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다른 성인의 지지( $\beta=.244$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beta=.239$ )과 부부관계( $\beta=.237$ ), 집단괴롭힘( $\beta=-.191$ ) 순으로 사회적 적응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은 다른 성인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또래들로부터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개인, 가족, 사회요인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의 초등학교와 다문화 관련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성인의 지지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지망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Park et al., 2010)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이 갖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역사회로부터 경험한 폭력 및 차별경험은 아동의 인간관계와 생활만족도, 심리사회적 적응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Shin, 2008; Jeong, 2011)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가족 아동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망이 약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지역 내의 성인들과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한다면 위협한 상황에 처했다더라도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Park, 2009b). 실제 다문화가족 아동의 행동문제나 부적응문제의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연구(Nho & Hong, 2006)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종교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1:1 결연프로그램이나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직접적인 지지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타자와의 효과적인 관계형성을 원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가치감이 높은 다문화가족 아동일수록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Kim, 2007; Park, 2009b)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Lee 2012; Song, 2012)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Jeong, 2011)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아동기는 발달과정의 특성상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Song, 2012).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또래집단과 자신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감 저하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 2009; Choi, 2010).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부관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의 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Grych, 2005; Turner & Kopiec, 2006; Choi, 2009; Yong, 2009)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아동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유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Emery & O'Leary, 1984)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는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태도 등을 끊임없이 절충하고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내국인 부부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Shin, 2010).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가족단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가족상담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부부관계증진,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력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는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2010)와 또래관계에서의 차별경험이 대인관계(Jeong, 2011)와 심리사회적 적응(Lee, 2007; Shin, 200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차별경험 및 또래관계 문제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고, 학교적응과 행동적응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Kim, 2011)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동기는 또래관계를 통해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게 되므로 이 시기는 사회적응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비합리적인 무시와

거부 등의 차별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in, 2008). 따라서 아동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배려하는 생활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과 집단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멘토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링을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른 성인의 지지와 자아존중감, 부부관계, 집단괴롭힘 등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가족, 사회환경 등의 다차원적 요인들이 상호관련성 속에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Lee, 2010; Heo, 2011)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Park, Cho, & Lee, 2008)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에 비해 아동은 문화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Roberts et al., 1999)에서 단서를 찾고자 한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과 자신이 속한 집단문화 속에서 야기되는 문화정체성의 혼란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아동기에는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발달하지 않아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들의 적응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일반 가족 아동과 직접적인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는 대상표집에 있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종교에 의해 이주한 가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아동을 표집하여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집단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인, 가족, 사회요인의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문화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

- 교육과학기술부(2011).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정책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10).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 Asher, S. R.(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Recent advance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Berry, J. W.(2002).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232-253.
- Choi, E. S.(1999).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Unpublished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Korea.
- Choi, S. B.(2010). *The analysis of school life adaptation on the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Ph. D.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Choi, S. H.(2009).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those in the areas of Daejeon and Chungcheung provi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Choi, S. U.(2006). *A study on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mong elementary student children of single parent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ng Sil University, Korea.
- Crosnoe, R.(2005). Double disadvantage or signs or resilience? The elementary school contexts children from mexican immigrant famil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2(2), 269-303.
- Emery, R. E. & O'Leary, K. D.(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Finch, B. K. & Vega, W. A.(2003).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 in California.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3), 109-117.
- Grych, J. H.(2005). Interparental conflict as a risk factor for child maladjustment. *Family Court Review*, 43(1), 97-108.
- Hahn, C. A.(2009). *The progressive 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Ph. D.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Korea.
- Heo, G.(2011). A study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mong mother's attachment, self-esteem, emotional control, and unadaptive behavior for multicultural childre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28, 209-223.
- Hong, J. J.(2004). *A study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youth in mongolian migrant workers' family*.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Hyun, K. S.(2008). *Effect of conflict and upbringing attitude of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on children's maladjustment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Jeong, H. J.(2011). *A study on the children's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steem, and adaptation to schools in multicultural families of rural areas : A comparison with the children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Ph. D.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J. H. & Kim, S. A.(1996). Influence of family on antisocial behavior of adolesc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7, 109-141.
- Kim, K. R.(2007). *The effect of the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Kookmin University, Korea.
- Kim, N. Y.(2012). *Study on impact of abuse experience level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adjustment to school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Ph. 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im, S. G.(2011).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247-272.
- Kim, Y. N.(2008). A study on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terms of their acculturative process in south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19(3), 139-168.
- Kwak, K. J.(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parent-children interaction types and their effec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26.
- Kwon, E. H.(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juvenile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Unpublished Ph. D. Thesis. Wonkwang University, Korea.
- Kwon, H. K. & Lee, H. K.(2004). The effect of optimism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degree of satisfaction toward school-mediated by achievement motivation and ego strength.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4), 723-741.
- Lee, J. A.(2007). *A comparative studies on the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Unpublished Ph. D.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Lee, J. Y.(2010). The impact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group on the social competence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5, 169-186.
- Lee, K. S.(2012).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on social adjustment.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4(1), 91-107.
- Lee, S. J.(2006).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 on adolescents experienced family violence*. Unpublished Ph. D.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 Lee, Y. J.(1994). *The relation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Unpublished Ph. D.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Korea.
- Lee, Y. J.(20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Unpublished Ph. D.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wis III, M. K.(2003).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lated constructs among academically resilient and academically nonresilient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Lloyd, B. T.(2000). *Media influence on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 competence: Does music video impact adole-*

- scnt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oveland, T. E.(2001). *The inclusive classroom context: Interaction with and influence on the social competence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Nho, C. R. & Hong, J. J.(2006).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2, 127-159.
- Nho, C. R.(2000). Use of rosenberg's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ing variable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0, 107-135.
-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Wiley).
- Park, G. M.(200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Korea.
- Park, K. R. & Lee, J. M.(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fluenc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aegu, Gyeongbuk area.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6), 981-991.
- Park, S. H.(2009a).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125-154.
- Park, S. H.(2009b). *A study on resilience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Ph. D. Thesis. Dong Shin University, Korea.
- Park, S. H., Cho, W. T. & Lee, J. H.(2008). A study of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7, 58-76.
- Park, S. H., Lee, J. H., An, H. J., & Cho, W. T.(2010). Effects of parents' social network on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3, 185-217.
- Perkins, D. F. & Jones, K. R.(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 547-563.
- Roberts, R. E., Phinney, J. S., Mase, L. C., Chen, Y. R., Roberts, C. R., & Romero, A.(1999). The struture of ethnic identity of young adolescents from diverse ethnocultural group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01-322.
- Romero, A. J. & Roberts, R. E.(2003). Stress within a bicultural context for adolescents of Mexican desc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2), 171-184.
- Scheier, M. F. & Carver, S. S.(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 Research*, 16, 201-226.
- Shin, J. H.(2008).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between the immigrant women's children and gener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Shin, J. H.(2010). *Exploring pathways from acculturation attitudes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Unpublished Ph. 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Smart, J. F. & Smart, D. W.(1995). Acculturative stress of Hispanics: Loss and challeng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90-396.
- Song, J. H.(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Turner, H. A. & Kopiec, K.(2006).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2), 131-158.
- Tusaie-Mumford, K.(2001). *Psychosocial resilience in rural adolescents: Optimis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gender differenc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Un, S. K.(2010).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bicultural children: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Ph. D. Thesis. Soong Sil University, Korea.
- Yang, M. J., Lee, E. K., & Lee, H. W.(2006). A study 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 environmental variables and mental Health variables of adolesc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4(1), 63-76.
- Yong, H. J.(2008).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 mental health of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Yoon, E. J. & Park, I. J.(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hyness and their social adjustmen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2(2), 65-80.

- 접수일 : 2012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12년 06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05일